

전북도 이차전지 유치의 당위성

항만 · 공항 · 철도 등 트라이포트 갖춰

이차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일차전지와 달리 충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다. 친환경 부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니켈·카드뮴·리튬이온·니켈-수소·리튬폴리머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카메라 등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핵심소재이며, 부가가치가 높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21C 3대 전자부품으로 꼽힌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예정지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4.1km(427만평)로 되어 있다. 이곳은 항만(25년)과 공항(2028년), 철도(2030년) 등 핵심 물류 SOC 구축이 완료된다.

또한, KIST 전북분원 등 도내 23개 혁신 연구기관, 전북대 등 6개 대학이 인접해 있다.

특화단지 예정지는 최근 3년간 이차전지 기업 총 23개사에서 7조원 투자협약을 마친 상태다. LG화학·화유코발트, GEM뉴에너지머티리얼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렇듯 도내 이차전지 기업의 최근 1~2년간 투자금·투자면적은 지난 10년간 투자 금액 대비 3배, 투자면적은 2배로 큰 증가 폭을 보이며, 미래 각종 산업입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도의 이차전지 집중 육성
전북도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특화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3월 '글로벌 이차전지 혁신 허브, 전북의 새로운 도약이란 목표'로 이차전지산업 육성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면서 전북의 핵심산업으로 이차전지 분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민선8기 전략산업화... 관련기업 집적화, 생태계 빠르게 구축

이차전지 제조부터 폐배터리 등 생애 전주기 안전성 확보

특히 민선8기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이차전지 산업을 전략산업 중 하나로 삼아 생태계 조성은 물론 가치사슬체계 완성을 위해 알짜 기업들을 유치하고 도내 대학·연구기관들과 협업해 연구개발(R&D)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에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태다.

또한 울들어(㈜LG화학, 지아멤뉴에너지머티리얼즈 등 이차전지 소재 대기업들이 집적화되면서 전북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최적의

공급기지로 입증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들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를 필두로 한 친환경 차량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세계 시장에서 친환경차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에스앤이(SNE)리서처에 따르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 향후 10년간 8배 정도 성장(2020년 461억불→2030년 3.517억불)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국·중국·일본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24%,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54%의 점유율을 보이며, 높은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달 18일 서울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심사에서 김관영 지사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발

표하며, 전라북도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임을 피력하는 등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해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노력과 효과 그리고 과제

전북도는 전기차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이차전지 소재 생산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산업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대응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평가 시, 경제활성화 파급효과와 더불어 관련 기업 현황도 평가하는 만큼 글로벌 최고의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력을 가진 (주)LG화학과 지아멤뉴에너지머티리얼즈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입주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 체인 구축이 필요하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력수급 문제 해결, 기업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작년 말부터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올해 2월에는 이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도내 대학 등 관련 11개 기관들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차전지 인력양성 지원센터를 개소·운영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전북도는 또 이차전지 소재의 경우, 전북의 강점 산업인 탄소소재와도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도내 전·후방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전북대학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테크노파크는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 생산에서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전주기 안전성도 확보하게 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차전지 기업들의 유지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며,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공급기지' 하면 '전북'을 떠올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해 이차전지 혁신 허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순창군의회 정례회 개최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심사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아)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제278회 제1차 정례회를 갖는다.

이번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건과 의원질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조례안 2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기타안건 1건 등 총 26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 회의, 예산안 심사와 2일부터 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다.

모든 안건은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여 정례회를 마칠 계획이다.

신정아 의장은 개회사에서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난해 씩씩하게 노력하며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협력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대안을 모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최용수 순창군의원

안전 순창 조성 방안 제안

순창군의회 최용수 경제산업위원장은 1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순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순창군민이 과연 안전한 순창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얼마전 일어난 구름번개 투포스 사고, 이태원 사고 등을 예로 들면서 "생각지도 못한 안전사고들이 우리 주위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안전관리부서와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토록 순창군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시설물 및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가 방해되는 구조물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늘어가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도로변 사업추진시 안전요원 배치 및 장소 이동에 교통사고 위험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들에 대한 면허증 지원방안을 위해 마을택시 이용대상에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운전자도 포함하고, 교통안전교육의 집합교육을 운영토록 하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야간 운동하는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토록 야간산책로 등 안전용품 지급과 운동코스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건의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정치 이론, 그리고 젠더와 정치의 관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여성외정과 '호남정치학교'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정정희)는 정치에 관심있는 호남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 간 한국여성외정과 공동으로 호남정치학교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외정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건강한 정치문화발전을 위해 제헌 이후 현재까지 여성 국회의원이 여야를 초월해 2013년 설립한 국회의장 산하 법인이다.

호남정치학교는 한국여성외정과 협력사업으로 정치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문제를 다루고, 국가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새로운 세대의 여성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일 센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양성 평등과 여성의 권한 부여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정치적 지도자 자리에서 더 많은 여성 대표성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회 남녀동수 선포식을 열고 남녀동수와 동등참여로 공정한 정치적 대표성 강화에 여성들의 힘을 모았다.

이에 이번 호남정치학교를 통해 정치적 진로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훈련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격차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혜훈 한국여성외정 상임대표(제17·18·20대 국회의원)는 개회사를 통해 "인구 절반,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정치 참여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위한 책임이자 의무"라며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정치에 관심있는 호남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 간 한국여성외정과 공동으로 호남정치학교 기본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호남정치학교 교육을 통해 여러분의 정치 역량이 향상되고 성장해 능력 있는 호남 지역 여성정치인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치학교는 정치 이론, 젠더와 정치의 관계, 스피치 및 소문법, 리더십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치 분야의 유명한 전문가들의 강연과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정치인들이 멘토 역할을 하며 참가자들에게 참여형 교육 및 네트워킹 등을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정치적 담론과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자신감을 북돋워 줬다.

이번 교육은 △정치란 무엇인가(유승희 17·19·20대 국회의원) △헌법 이해와 정치(한공식 전 국회의원) △SNS 소통법(최재용 한국메카닉스 BSG연구원장) △남녀동수(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환경변화와

정치(황윤영 영화감독) △디베이트(케빈리 한국디베이트코치협회장) △여성 정치인과의 만남(전정희 19대 국회의원, 박정희·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서난이 전라북도의회 의원) △젠더와 사회(박진경 전 이화여대 초빙교수) △나의 각오 발표(이남숙 전주시의회 의원)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정정희 센터장(호남정치학교교장)은 "여성정치학교는 양성 평등 및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여성들이 지도자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더 공평하고 포괄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학교를 통해 여성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키우고 의정단상에 오를 수 있길 혹은 정치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비정치인으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농어촌 맞춤형 의료전달체계 마련 가능해지나

민주 윤준병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일,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 등 보건요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서비스의 부족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3.612명 이던 공중보건서비스는 2023년 4월 기준 3.176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의사의 경우 2023년 기준 복무인원수가 729명인 데 반해 신규인원은 450명으로 인력대비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중보건서비스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가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의료전달체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 인력 수가 부족해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따라 기존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 인력 역시 날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농어촌지역에서는 보건지소가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

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럼에도 농어촌 등 보건요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 보건지소 간 통폐합 등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재편하는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보건요원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요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지소를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는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 등 보건요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지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원활한 보건요를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혹여 의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보건지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정해진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은성 기자

"금융중심지·새만금 이차전지단지 지정을"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가 1일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약속 이행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75차 월례회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는 최근 관련법의 개정 없이 국토부 고시로 산업은행의 부안 이전이 결정된 것과 너무 다른 처사"라며 "기술발전 운동장에서 정치적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는 조장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약속 이행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5개 지역이 경쟁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새만금 지정도 촉구했다. 시·군의회 의장들은 "단지개발의 신속성과 용지 확장성, 국제적 입지를 갖춘 전북 새만금이 특화단지로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기초학력 보장 교육환경 지원 근거 마련

김희수 도의원 발의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 농산림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교육청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



생의 비율이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

로 조사됐고 OECD에서 전세계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평가 결과에서도 한국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2006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매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현행법을 파악하는 등 매년 실태를 조사해 학습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